

법계찬탄문

인도어로는 다르마다뚜 스파밤.
티베트어로는 최끼 잉쭈 띄빠.
한국어로는 법계를 찬탄하다.
성스러운 문수동자께 예경합니다.

1. 법계를 알기 전까지는
삼계를 돌고 도니
모든 중생에게 내재된
법계(法界)에 예경한다.
2. 번뇌는 윤회의 원인이 되고
번뇌를 정화하여
청정해진 마음이 열반이며
법의 몸(法身)이다.
3. 우유에서는
버터가 보이지 않듯이
법계 역시 번뇌와 섞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4. 우유를 정제하면
깨끗하고 순수한 버터가 드러나듯
번뇌를 정화하면
완전 무결한 법계가 드러난다.
5. 불씨가 병 안에 있으면
조금도 보이지 않듯이
번뇌가 병 안에 있는 한
법계 역시 보이지 않는다.
6. 어느 쪽으로든
구멍을 뚫으면
그 쪽에서
빛이 새어 나온다.
7. 금강삼매가 생기는 순간
병은 깨지고
그때 빛은

허공 끝까지 비춘다.

8. 법계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허공은 막힌 데가 없다.
시간에는 번뇌가 없으니
처음도, 중간도, 끝에도 번뇌가 없다.
9. 마치 벤두리야 보석처럼
매순간 빛나지만
흙 속에 있으면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
10. 이처럼 법계가 무결하다 해도
번뇌에 가리면
윤회 속에서 빛을 잃으니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빛난다.
11. 씨앗은 이미 존재하니 노력하면
순금을 얻을 것이다.
씨앗이 없다면 노력해도
번뇌만 일어날 것이다.
12. 마치 쌀을 감싸고 있는
쌀겨를 쌀이라 하지 않듯이
번뇌로 가득한 존재를
부처라 부르지 않는다.
13. 쌀겨를 벗기면
쌀알이 드러나듯
번뇌에서 벗어나면
법신(法身)이 온전히 드러난다.
14. 세상 사람들은
'파초는 속이 비었다'고 하면서도
파초의 정수인 열매는
'달다'며 먹는다.
15. 속 빈 윤회 가운데서
번뇌의 껍질을 벗으면
부처가 되고
모든 중생의 감로수가 된다.
16. 모든 씨앗은
씨앗을 닮은 열매를 맺는데

원인 없는 결과가 존재한다고
상식이 있는 자라면 증명할 수 있는가?

17. 씨앗이 되는 기본 요소
모든 성품의 근본이고
단계별 정화를 통해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18. 본시 해와 달에 티끌이 없으나
구름, 안개, 연기,
번개, 먼지가
장막이 되어 가린다.
19. 이처럼 명료한 마음을
욕심, 악의, 나태,
불안, 의심
다섯 가지 허물이 가린다.
20. 이는 불로 밝히는 옷과 같은데,
온갖 때로 더러워진 옷을
불에 집어넣으면
때는 타고 옷은 타지 않는다.
21. 이처럼 명료한 마음은
욕심과 같은 더러운 것과 함께
지혜의 불 속에 넣으면
번뇌만 타고 명료함은 타지 않는다.
22. 공성을 설명한 경전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든
모두가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일 뿐
근본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다.
23. 땅 깊이 흐르는 물은
더럽지 않듯이
번뇌 속에 숨어 있는 지혜도
이와 같이 더럽지 않다.
24. 법계는 ‘나’가 아니다.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다.
모든 인식에서 벗어난 것을
그저 ‘나’라고 부른다.
25. 애착할 대상이 없는 모든 법이니

‘여성’ ‘남성’이라 할 대상이 없다.
애착 때문에 눈이 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성’ ‘남성’이라 부를 뿐이다.

26. 무상, 고통, 공성

이 세 가지로 마음을 밝히고
최상으로 마음을 밝히는 법은
자성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27. 임신부 태 중에

태아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듯
이와 같이 번뇌에 가린
법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28. ‘나’와 ‘나의 것’이라는 분별과

명칭으로 인해
네 가지 분별이 생기나
이 또한 여러 요소에서 비롯된 것.

29. 여러 부처님의 기도 역시

보이지 않고, 특별하지 않으며
그저 각자 앞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부처는 영원한 법성(法性)이다.

30. 토끼의 머리에 달린 빨은

상상에서만 존재하듯이
모든 법도
상상에서만 존재한다.

31. 미세한 원자로 구성된

소의 빨 역시 볼 수 없다.
작은 원자조차 없으니 원자로 구성된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무엇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32. 의존하여 발생했고

의존하여 소멸하기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어리석게 어째서 분별하는가?

33. 토끼빨과 소빨의 비유

이 모두 분별이다.¹

¹ 이 논전에는 해당 구절이 없지만 산스크리트본에는 있다. 역경사 고 손누뽀이 지은 『보성론』의 주석서인 『진여를 상세히 밝히는 거울』에서 법계찬탄문의 계송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발생하여 이름 붙인 특성, 토끼빨과 소빨의 비유처럼, 중관 사상으로 이해해야 하니 선서의 법성과 같다.”

부처님께서 법은
중관(中觀)이라 증명하셨다.

34. 잔에 담긴 맑은 물에
해, 달, 별의
모습이 비치듯
온전한 실성(實性)도 이와 같다.
35.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선하고
속임이 없고 견고하다.
‘나’가 없는데
어찌 ‘나의 것’이 있겠는가?
36. 같은 물을 두고
한여름엔 ‘따뜻하다’고 하고
같은 물을 두고
한겨울엔 ‘차갑다’고 한다.
37. 번뇌의 그물에 걸린 이를
‘중생’이라 하고
번뇌에서 벗어난 이를
‘부처’라 한다.
38. 눈과 형상이 서로 의존하여
오류 없는 인식이 생겨나듯
발생이 없고 소멸이 없는 상태에서
법계를 온전하게 알 수 있다.
39. 귀와 소리가 서로 의존하여
올바른 인식이 생겨나고,
세 가지의 성품이 사라지면 법계지만
분별을 가지니 ‘듣는 것’이 된다.
40. 코와 냄새에 의존해 냄새를 맡고
이것은 형상이 없는 예시로
코의 후각으로
법계를 안다.
41. 혀의 자성은 공성이다.
맛의 요소 역시 빈 것이다.
법계의 본질이기에
인식을 할 수 없다.
42. 청정한 몸의 본질과

촉감의 특성과
조건에서 벗어난 것을
법계라 한다.

43. 의식이 중심이 되어 나타난 현상에
분별과 망상을 덧붙이지 않고
현상에 자성이 없다는 것이
법계임을 (알아) 수행하라.
44. 수행자는 현상을
보고, 듣고, 말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특성을 갖추었다.
45.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은 청정하니
청정함이 진여(眞如)의 특성이다.
46. 마음은 세간에 머무는 것과 세간을 벗어난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윤회라면
스스로를 아는 것은 진여이다.
47. 애착이 사라지면 열반이고,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끊어진 자 부처이니
몸 가진 모든 이의 의지처다.
48.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 몸이 구성되었으니
분별하면 속박되고
제대로 알면 해방된다.
49. 깨달음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다.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다.
번뇌의 감옥, 그곳에서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한다.
50. 환히 밝힌 지혜로
가장 승고한 평온에 머무니,
'자신을 살피며 머물라'고
많은 경전에서 설명한 것이다.

51. (여래는) 열 가지 힘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추지만
번뇌에 사로잡힌 자는
여래를 보지 못한다.
52. 마치 아귀들에게
저 바다가 고갈된 것처럼 보이듯
어리석은 자들은 무지하여
부처가 없다고 여긴다.
53. 아둔하고 박복한 자들은
부처님께서 무엇을 베푸든
보석을 본 적이 없는 자에게
최상의 보석을 손에 쥐여 준 격과 같다.
54. 복덕을 지은 중생에게
부처님은 서른두 가지 상호로
존귀하게 빛나니
복덕이 있는 이 곁에 부처가 머문다.
55. 중생을 위해 나투신 부처님
억겁을 머물며
따르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세계에 나투신다.
56. 마음이 뜻한 바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알기 위해 집중을 하니
있는 그대로를 알아
보살의 경지에 머문다.
57. 대자재천의 웅장한 거처,
색구경천의 아름다운 영역,
의식,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될 수 있다고 내가(나가르주나) 말한다.
58. 어리석은 자 가운데도 제대로 아는 이가 있고
성인 중에도 다양한 성인이 있듯이
대자재천의 무량한 수명,
그 겁劫의 요인은 무엇인가?
59. 외부 중생의 세계 역시
무량한 겁 동안
수호하고,
유정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60. 쉼 없는 원인이고
 그 과보 또한 줄지 않는다.
 (분별로) 보지 않는 부분들이
 지혜가 되어 뜻에 다가간다.
61. 깨달음이 멀리 있다 여기지 말며
 가까이 있다고도 착각 하지 말라.
 여섯 가지 대상이 없다는 사실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62. 같은 잔에
 우유와 섞인 물이 있어도
 백조는 우유를 마시고
 물은 마시지 않듯이 그렇게 살라.
63. 이와 같이 지혜는 번뇌에 덮여
 한 몸에 같이 있지만
 수행자는 지혜를 지니고
 무지는 버린다.
64.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바깥 대상을 분별하지만
 두 가지 무아를 보면
 윤회의 씨앗은 근절된다.
65. 따라서 (법계는) 부처이자 열반이며
 청정하고, 항상하고, 선(善)의 근간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원적 분별을 하나
 수행자는 이원적 분별을 하지 않는다.
66. 보시하는 과정에서 겪는 온갖 역경 극복하고
 계율은 중생을 위해 화합하는 것이고
 인내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내면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67. 모든 법으로 정진하여
 선정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지혜에 언제나 의지하니
 이것이 깨달음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68. 방편이 있는 지혜,
 순수한 기도,
 (법계의) 힘을 믿는 확신과 반야는

내면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법이다.

69. ‘보리심에 절하지 말라’는
악의적인 말을 하지만
보살이 없었다면
법신은 생기지 못했을 것이다.
70. 사탕수수의 씨를 버려 놓고
단맛을 맛보려 하는 것인데
사탕수수 씨앗이 없는데
어찌 단맛을 맛볼 수 있겠는가.
71. 사탕수수의 씨앗을 지키고
유지하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설탕을 맛보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72. 보리심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실천하여
아라한들이 생겨나고
부처들이 탄생한다.
73. 마치 법씨 같은 종자를
농부들이 지키듯
대승을 염원하는 이들은
안내자들께서 지키신다.
74. 그믐달이 뜨는 날
달의 모습을 아주 조금 볼 수 있듯이
대승을 염원하는 이들 역시
부처의 실체를 아주 조금 볼 수 있다.
75. 새롭게 달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순간순간 커져 가는 것이 보이듯
보살의 경지에 머무는 이들 역시
차츰차츰 향상되는 것이 보인다.
76. 보름달이 되면
달이 가득 차는 것처럼
보살지의 구경(究竟)에 이르면
법신 역시 완전하여 빛난다.
77. 부처, 법, 승가에
언제나 흔들림 없는 염원으로

올바른 마음을 일으킨다면
(보리심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난다.

78. 네 가지 악한 법은 전부 버리고
네 가지 선법은 잘 지키며
(법계를) 완전히 아는 그때
'환희롭다' 할 것이다.
79. (중생은) 애착 같은 것들로 인해
언제나 허물을 갖고 있지만,
허물이 없어지고 청정해지면
'무결하다'고 할 것이다.
80. 번뇌의 그물을 끊었으니
순수한 지혜가 드러나고
끝이 없는 무지를 제거하면
'빛이 난다.'고 할 것이다.
81. 항상 순수한 빛이 빛나
분별은 온전히 사라지고
반야의 빛이 에워싸니
'빛을 비추는 지위'에 있다고 한다.
82. 지식,神通, 능력 모두 (이 지위에서 완성된다.)
단계별 선정을 통해
제거하기 아주 어려운 번뇌조차
전부 떨쳐 버리니 '극복이 어려운 지위'라 한다.
83. 세 가지 깨달음에
원만함까지 더해져
발생과 소멸을 여의니
'직접 나타난 지위'라 한다.
84. 법륜을 굴리니 도처에
자비로운 빛이 퍼져 나가고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니
이런 이들을 '멀리 떠나간 자'라 한다.
85. 부처님의 의중을 알고서
반야의 바다에 머물며
애쓰지 않아도 이루니
마군(魔軍)이 '동요 시키지 못하는' 지위이다.
86. 각각 올바르게 알기에

수행자는 이를 완전히 통달하여
다양한 이야기로 설법을 전하니
이 지위를 ‘선한 지혜’라 한다.

87. 반야의 본질로 형성된 이 (지위의) 몸은
무결함이 허공과 같아서
여러 부처님이 그러한 것처럼
‘법구름’이 도처에서 생겨난다.
88. 여러 부처님이 전한 법의 핵심 실천하여
온전한 결과에 도달하면
(자신의) 자리는 (형태가) 완전히 변하여
‘법신’이라 불린다.
89. 훈습(薰習)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만
윤회의 훈습은 예측할 수 있다.
그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니
누가 그대를 알 수 있겠는가?
90. 말을 너머,
모든 감각 기관의 대상도 아닌,
심식으로만 알 수 있는
대상에 예경합니다.
91. 탁월한 부처님과 보살님이 나아간
길로 따라 나아가면
법의 구름인 지혜로
실성(實性)이 곧 공성임을 안다.
92. 이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연화좌에
머물 것이다.
93. 꽃잎마다 빛나는 보석들이 달려 있고
누구든 원하는 꽃밥,
수천 송이의 연꽃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다.
94. 열 가지 힘으로 충만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중생을 안심시키고
무량한 부처의 법
분별을 여윈 것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95. 모든 길을 바르게 수행하여
 복덕과 지혜를 쌓으면
 은하수 가운데 있는 달처럼
 많은 이들 가운데 있다.
96. 태양과 같은 부처의 손에
 무결한 보석이 빛나고 있으니
 아들(나가르주나)의 머리에 권한을 부여하시고
 이 권한을 모두에게 나누게 하소서.
97. 큰 수행자는 이곳에 머물러
 어리석기에 열등한 세상 사람들이
 괴롭고 두려워 떠는 것을
 천신의 시선으로 보니
98. 그의 몸에서 빛이
 애쓰지 않아도 나와
 어리석은 중생의 무지에 닿으니
 문을 열게 한다.
99. 유여 열반에 든 자들이
 무여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열반은
 허물이 없는 마음을 뜻한다.
100. 실체 없는 모든 중생의 본질이
 그들의 법계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보리심이고
 어떤 허물도 없는 법신이다.
101. 허물이 없는 법신에
 반야의 바다가 있고
 온갖 진귀한 보석들이 있으니
 이것으로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대학자 나가르주나(龍樹)가 지은 『법계찬탄문』이 끝났다. 인도인 학자 크리쉬나
 빠디따와 역경사 출팀 켈와가 티베트어로 옮겼으며, 양지애가 티베트어에서 한국어로
 옮겼다.